

# 익산시, 환경교육도시 조성 박차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역 현황 진단 · 다각적 발전 방안 모색

익산시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환경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전북환경센터와 29일 금마 서동생태관광지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환경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초강연과 전문가 발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실 김양희 서기관이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정책 및 현황을 주제로 기초 강연'을 나눴다. 이어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김문옥 사무처장이 '환경교육 지역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발제



했다.

토론은 김중만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장을 좌장으로 익산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제안과 자유토론으로 이뤄졌다.

장남정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전북 환경교육특례 소개 및 발전방향'을 시작으로 윤대현 익산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익산 교육기관의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최재현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원장의 '환경교육 활성화와 시의회 역할' 원경 희망연대 팀장의 '시민과 단체가 함께하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양경진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이 '익산시 환경교육 정책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전문가들과 공유했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익산시가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해결에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환경교육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교육을 통한 환경문제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힘을 모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다이어로움, 9월 20% 할인

### 시, 명절 앞두고 지역 경제 긴급 견인을 위한 민생경제 특별대책

지역화폐 익산다이어로움(多e로움)이 9월 한 달 동안 20% 특별 할인 혜택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익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기존 10% 할인에 추가 10%를 더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이어로움은 익산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 시책이다. 시는 명절을 앞두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긴급 견인하기 위한 민생경제 특별대책으로 이번 추가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다이어로움 구매한도는 70만 원으로 동일하며, 충전 시 최대 14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익산다이어로움의 누적 가입자 수는 24만 8,000명으로 익산시 인구의 93%

에 육박하며, 누적 발행량은 27일 기준 1조 9,097억 원으로 2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결제율은 98%로 발행된 상품권 대부분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청년물, 착한 가격업소, 지역 서점 등 연계된 가맹점 76개소에서는 정책적인 적용으로 다이어로움 결제금액의 10%가 추가 지급돼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보탬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8일 군산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개강 시기에 맞춰 안전우산네트워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방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군산 이차전지산업 육성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가결

### 환경보 의원 발의

군산시의회 환경보 의원이 발의한 '군산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및 지원 등을 규정한다.

환경보 의원은 "지난해 7월 군산대 만공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이차전지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통해 군산시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3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익산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다음달까지 초등학교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 구역을 중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익산시는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및 익산시민경찰연합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일제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익산시는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및 익산시민경찰연합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일제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익산시는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및 익산시민경찰연합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일제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찰연회와 함께 순차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정비대상은 △음란·퇴폐·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사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동별 2개 이상 설치 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추락 위험 간판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난간 등

에 설치한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집중호우 또는 강풍 시 낙하 우려가 있는 간판은 광고협회 익산시지부 회원들과 점검을 진행한다.

익산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이번 일제정비뿐만 아니라 순찰 차량을 이용해 평일에는 매일 단속에 나서고 있고 주말에도 휴일반을 편성해 단속하고 있다.

김석우 도로관리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 일제정비는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정비 활동과 상습 위반자 계도를 더욱 강화하고 반복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우리동네 안심귀가 우리가 만들어요”

### 군산시 나운3동 안전우산네트워크, 합동순찰로 치안 유지 도모

군산시 나운3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소영)는 지난 28일 군산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개강 시기에 맞춰 안전우산네트워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방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순찰은 군산대학교 앞 생활권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은파지구대, 지곡119안전센터, 은파저울방범대, 군산대총학생회, 군산대정문원룸협의회 및 주민자생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방범 순찰대는 군산대학교 원룸가를 비롯 인적이 뜸한 골목까지 점검하면서 나운3동에서 추진하는 야간 방범 예방 알람 조령 등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역도 함께 살펴보기도 했다.

나운3동 김소영 동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나운동이 되도록 여러분들과 더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안전우산네트워크는 주 1회 기관별 책임 야간 순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동체 치안을 도모하는 등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방침이다.

한편 나운3동 안전우산 네트워크는 자연 재해와 함께 방범·화재 등 사회재난까지 아우르는 마을 단위 재난안전 협의체이다.

소규모 점 단위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주민들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켜나간다는 구상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마을자치형 통합재난안전대응 사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감염취약시설 대상 코로나19 예방 간담회

익산시 보건소가 최근 코로나19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9일 지역 감염 취약시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감염 취약시설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지원단의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현황과 방역수칙 설명으로 시작했다. 특히 감염 확산 최소화와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시설 적용 수칙을 강조했다.

이어 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보건소 신고요령 등을 안내했다. 환자 발생 시 감염관리 상황을 구체화하고 보건소의 초기 발생 관리 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우 보건소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중·장년층 '50+ 어깨동무 인생학교' 모집

익산시는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의 인생 재막 설계를 위한 '50+ 제3기 어깨동무 인생학교'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40~64세 익산시민으로 △디지털학부 10명 △문예창작학부 20명 △인간관계학부 10명 △창업취업학부 10명 등 총 4개 학부에 50명을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9월 6일까지 익산시평생학습관 누리집(ksn.gakur.ks)에서 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운영된다. 공평수업인 입학식과 주제강연, 지역사회 봉사 체험활동을 시작으로 학부별 강의가 진행된다.

모든 교육에는 전문 강사와 보조 강사가 참여해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고, 1:1 학습 상담도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평생학습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859-515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